

금호타이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 만들까

“노조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이한섭 사장, 윤장현 시장 면담서 밝혀

5일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집행부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의 실제 모형이 나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내년에 정부 예산 8억원을 ‘광주형 일자리 전국화 모델 개발 용역’에 쓸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이

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금호타이어 창립 57주년 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이 사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보장 등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이뤄졌다.

면담에서 이 사장은 “오늘은 금호타이

어 창립 57주년을 맞는 날이다”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맞는 생일날, 그동안 금호타이어의 상황을 걱정하며 지역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준 광주시와 지역 여러 주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금호타이어는 노조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지만 매각 문제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며 “광주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10월1일 노동조합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집행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금호타이어 문제는 광주시와 지역 기관·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역 최대 현안이다”며 “광주의 자존심이기도 한 금호타이어의 상황이 잘 풀리도록 대통령,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기회가 될 때마다 간절함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더불어 사는 광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협력하기로 했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

5일 오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개시 특별행사 ‘쿨릭하라! 평창!’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평창 서포터즈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12개 출연기관장 평균 연봉 8200만원

문화재단·정보진흥원 1위… 경영평가와 무관

광주시 산하 12개 출연기관장의 올해 평균 연봉이 8200여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12개 기관 모두 B(보통)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S등급(탁월)을 받더라도 해당 기관에 별도의 예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 기관장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올해 연봉이 9800만원으로, 출연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에서 전체 대상 12곳 중 꼴찌를 했으나 가장 높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성과급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성과급 포함 1억800만원을 받았으며, 올해 경영평가에서 5단계나 상승해 A등급을 받아 연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8000만원이 넘는 곳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9400만원), 그린카진흥원장(85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장(8800만원), 여성재단 대표이사(8000만원) 등 4곳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이 71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7200만원,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7300만원, 경제고용진흥원장 7400만원 등이다.

비상근인 영어방송 대표는 3600만원을 받는다는.

지난해 성과급 포함 역대 연봉을 쟁긴 곳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1억원) 등 2곳이다. 수당을 제외하고 기관에 따라 월 100만~3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다.

올해 경영평가 성적은 평균에 못 미친 여성재단이 S등급으로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다. A등급(우수)은 문화재단, 디자인센터, 신용보증재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과학기술진흥원이 차지했다.

B등급은 그린카진흥원, 복지재단, 경제고용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영어방송,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순이며, 성과급이 줄거나 없는 C 이하는 없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美 메릴랜드주 자매결연

전남도는 5일 미국 메릴랜드주(州)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 2013년 11월, 두 지역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이어온 지 4년여만의 성과다. 전남도는 앞으로 메릴랜드주와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58·Yumi Hogan·김유미)과 존 우엔스미스 국무장관 등 14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나주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부인이자 메릴랜드주 최초의 아시아계 퍼스트 레이디다. 전남도와 메릴랜드주가 자매결연을 맺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불 지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인터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선”

지난 2011년 1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래 민형배(사진) 광산구청장은 7년 동안 노동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임금, 사회적경제 등 그가 추진하고 실행해온 정책들은 대부분 새 정부 핵심사업으로 흡수됐다. 5일 광산구청장실에서 만난 민 청장은 “노동은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청장과 일문일답.

–최근 ‘광산구 공공부문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선언했다. 누가,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나.

▲기본적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담당자들이다. 예를 들면 구립도서관 자료정리 담당이거나, 직원 복지관에서 어르신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이다. 모두 54명이다. 지난달 14일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2011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7년 동안 광산구 본청, 직영 복지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 3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1년 1월 단행한 정규직 전환과 이번의 제로선언은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이였다. 그런데 새 정부가 전환 시점과 기준을 예전 정부보다 완화했다. 상시 고용 상태일 경우 예전엔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 9개월 이상이면 전환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2년이 채 안 돼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정부 지침 변경으로 전환한 것이다.

–7년 동안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속했는데, 무엇이 정책의 초점을 맞췄나.

▲핵심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초점은 두 가지다. 노동의 질을 높이고, 양도 확대한 것이다. 정년 보장으로 고용 불안을



7년간 구 본청 등 305명 해택

상시 고용 9개월 이상뎌 가능

해소하고, 호봉제 도입으로 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처우개선을 이뤘다는 뜻이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정규직 정책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 청장도 꽤 오랫동안 노동문제에 집중했는데 이유가 뭔가.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 때문이다. 노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명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 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 출발이 바로 노동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최승렬기자 srchoi@

내년 국비 확보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 연기

광주시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잠정 연기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예정이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이수 한빛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등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지역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조만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이형석 광주시장위원장, 김동찬 광주시장 대변인, 김영남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전진숙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와 민주당은 협의회를 통해 국비 사업 건의 20건, 지역 현안 8건, 공약 28개 세부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평 | 단층형

7, 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농막형 1,350 ~ 2,350 만원

옵션 선택가능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Mega outlet

LIFE STYLE FASHION OUTLET

남구청 內

LifeStyle Fashion Outlet

Mega outlet에서 함께 할 식당가 운영점주님을 모집합니다

광주의 중심 백운광장 남구청사에 닥스, 니키, 데캥트, 노스페이스, 지미크 등 국내외 최정상급 브랜드 70여 브랜드가 입점하는 Mega outlet 광주점이 9월말 오픈합니다. B1F 핫트렌드의 최신프랜차이즈 푸드존에서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대상브랜드

운영조건

지하 1층 프랜차이즈 식당가 4개점 경영점주

멘우사(일본라멘), 두끼(분식뷔페)

복촌순만두(만두/냉면), 스테이크보스(캐주얼스테이크)

브랜드별 상이 (입점문의 010 · 9545 · 1318 이성훈이사)

층별 안내

B1F

Food | kids

1F

Sports | Casual | Shoes

2F

Outdoor | Woman's wear

3F

Men's wear